

전남바이오진흥원, 실무인력양성교육 수료식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생물약연구센터(센터장 류강)가 지난 26일 '지역정주형 바이오 의약품 GMP/GLP 실무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배출한 바이오 실무 인력 42명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진) 교육 과정은 생물약연구센터와 화순백신특구(재)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개발해 3주간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순천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류강 센터장은 "이 사업은 바이오 기업의 인력 공급의 전초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생물약연구센터가 국토 남부권의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n@kwangju.co.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호남센터 개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전남·전북·광주·제주 지역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의 편의성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주시 웅천동에 호남센터를 새롭게 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이날 개소식에서는 유관기관 등이 화학안전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도 함께 마련됐다. 새롭게 조성된 호남센터에서는 최대 120여명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AR/VR 실습 시설이 구축돼 있어 호남지역 교육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이곳에서는 협회가 지역별로 진행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전용 교육장이 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인화학교 총동문회 사랑의 열매 나눔캠페인 동참

사랑의 열매 나눔캠페인 동참



광주인화학교 총동문회(회장 조재래)는 지난 26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철홍) '희망 2024나눔캠페인'에 참여했다. (광주 사랑의열매 제공)

해남 팜끝지역아동센터, 바자회 수익금 기부



해남 팜끝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배다혜)는 최근 사랑의 바자회 판매 수익금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이하 전남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 (사진) 지난 25일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국 전남 사랑의 열매 사무처장, 배다혜 센터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부금 117만 원은 센터 아동·청소년들이 학용품과 장난감, 의류 등을 판매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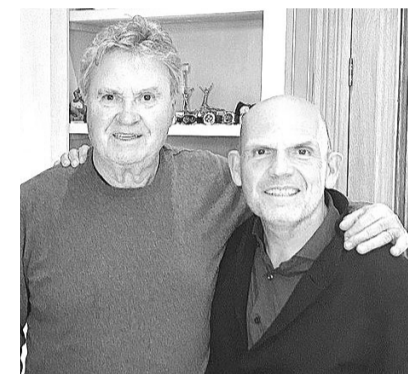
전남도, 2024년 산림관계관 회의 개최



전남도는 지난 26일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펼치기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2024년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시군 산림과장과 (사)숲속의 전남, 한국산방자치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유관기관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전남의 산림정책 방향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n@kwangju.co.kr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서울시향 홍보대사 위촉



2002년 월드컵을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왼쪽) 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서울시향교향악단의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서울시향은 히딩크 전 감독을 홍보대사로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히딩크 전 감독은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한 얀 판 츠베덴 음악감독과 절친한 사이다. 츠베덴 감독은 지난해 1월 임명장을 받으며 히딩크 감독이 서울시향의 홍보대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츠베덴 감독과 히딩크 전 감독은 둘 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자메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파파게노 재단'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이 재단은 얀 판 츠베덴이 부인과 함께 1997년에 설립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2024 광주 설맞이 명절 선물 박람회(재)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5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45 닥터 365 55 중계방송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토론회 1차
10	0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꽃영 영화가 좋다 베스트		
11		00 월화드라마 환상연가(재)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이맛에 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네모세모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스튜디오 K(재)	25 뽀뽀보 좋아좋아 55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	55 닥터 365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남도 지오그래피(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3		00 KBS 뉴스타임 15 시간여행자 루크(재) 3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피겨 남자 싱글 프리 외>	55 기본 좋은 날(재)	0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피겨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4	00 사사건건		55 5 MBC 뉴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25 세 번째 결혼(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월드 24 55 개는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도망쳐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10 월화드라마 환상연가	10 오은영 리포트 알골지옥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영화가 좋다(재)	50 스포츠 매거진	50 풀렘남도 스페셜
12	45 KBS결작 다큐멘터리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3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50 특별대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듣는다(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최고대 호기심딱지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50 한글용사 아이아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미라클러스: 레이디디브와 블랙캣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18:40 EBS 뉴스
07:00 미스터리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00 한국의 둘레길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20 고향민국
07:30 출동! 슈퍼월스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예술가의 VOICE
07:45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5:15 강신주의 장자 수업	20:00 탑골스타 개칭이
08:00 당동명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한글용사 아이아재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완전 정복! 이탈리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08:35 뽀뽀뽀 뽀로로	16:4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08:50 다이노스티	17:00 페파 피그	<허클 위외 겨울 1부 눈의 맛>
09:20 신계속의 맛따사이클 다이어리	17:10 마사와 곰	21:50 EBS 다큐프라임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22:50 인간과 바다
10:30 한국기행(재)	17:25 미스터리야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9일(음 12월 19일 壬辰) ☎ 010-9790-8237

<p>36년생 조짐이 보인다면 초기에 수습해야 뒤따라 없다. 48년생 해독은 정점이 속시원하게 해결될 것이니라. 60년생 오래갈 인연이 아니니 마음을 비우고 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72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여 왔던 바를 반갑게 맞이하라. 84년생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다. 96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0, 61</p>	<p>42년생 발군의 기량을 발휘할 결정적인 시기이다. 54년생 속고의 시간이 길수록 실속이 있다는 것을 알라. 66년생 시도한다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78년생 상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90년생 특실하게 보였던 것이 허할 것이다. 02년생 지속적인 노력과 성실함이 절실한 경로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07, 91</p>
<p>37년생 마음만 있을 뿐, 실행하기 힘든 판세이니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없겠다. 49년생 끌려다니지 말고 주체적이어야 한다. 61년생 방심하다가 급락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73년생 천하가 다 알다시피 두말하면 잔소리다. 85년생 목표처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워하게 된다. 97년생 열렬결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2, 79</p>	<p>43년생 초지부지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 55년생 여쩔 수 없이 어울려야만 하는 고통이 있다. 67년생 뜻이 확실하다면 기탄없이 추진하는 것이 낫다. 79년생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자기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91년생 특별한 인연을 맺는 과정에 놓인다. 03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45, 52</p>
<p>38년생 의심스럽다면 몇 번이고 확인하는 것만이 손실을 최소화한다. 50년생 주관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62년생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될 수 있다. 74년생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뒤돌아보라. 86년생 새로운 희망을 안고 오는 이가 있을 것이다. 98년생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7, 83</p>	<p>44년생 이면의 불씨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56년생 손을 맞잡고 함께 가야 이룰 수 있는 도량을 구축한다. 68년생 예상치 보다는 못 미치니 도움이 될 것이다. 80년생 방심과 인간적인 배려는 별개의 개념임을 알라. 92년생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라. 04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열매는 미미하겠다. 행운의 숫자 : 03, 69</p>
<p>39년생 거슬러다려도 충고에 귀기울이는 것이 좋다. 51년생 오리무중이었던 것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63년생 길사는 적으니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겠다. 75년생 순간의 선택이 전체적인 국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87년생 일일이 확인해 보라. 99년생 성공의 기쁨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50</p>	<p>45년생 이루는 것보다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긴요한 문제이다. 57년생 여유를 있으나 머지않아 해결될 수이니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 69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 처음부터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81년생 거의 완벽한 형태이다. 93년생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05년생 미리 서둘러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3, 65</p>
<p>40년생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라. 52년생 균형이 가기 전에 예비 점검을 확실히 하는 것이 안전하다. 64년생 금전에 집착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76년생 물심양면의 상호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88년생 기대할 만한 성과를 거둔다. 00년생 필연임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6, 70</p>	<p>46년생 유혹에 휘말린다면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58년생 의문이 생긴다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만 한다. 70년생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빛을 보리라. 82년생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실행하는 것이 지혜롭다. 94년생 조짐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면역할 수 있을 것이다. 06년생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38, 51</p>
<p>41년생 추구에 왔던 바와 정반대의 환경에 놓인다. 53년생 보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65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것의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77년생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이 한동안 계속되리라. 89년생 앞만 보고 진행되는 것이 최상책이다. 01년생 게임하지 말고 잠자코 있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6, 57</p>	<p>47년생 새롭고 신선한 정황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71년생 조금만 더 나아가면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83년생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5년생 기교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1, 73</p>